



한승택

KIA 불펜 위기... 포수도 바쁘다



KIA 타이거즈 불펜이 위기 상황에 빠지자 포수들의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KIA는 후반기 부상 압축을 만났다. 장현식과 전상현이 팔꿈치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고, 마무리 정해영도 지난 10일 어깨 통증으로 재활조가 되면서 리그에서도 손꼽던 'JJJ 필승조'가 해체됐다.

부상 비상 상황에서 KIA 불펜은 좌완 이준영, 사이드업 윤중현, 우완 고영창을 중심으로 매 경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7·8·9회를 책임지던 3명의 선수가 동시에 빠지면서 예측 불가의 뒷심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포수 한승택은 "아무래도 기존 필승조처럼 등판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경기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다"며 "같이 풀어나가야 하는 자리라서 어려움은 있지만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승조의 동반 이탈로 기존 불펜진의 부담이 늘었다. 베테랑이 적은 만큼 투수들도 긴박한 상황을 겪으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장현식·전상현·정해영

‘JJJ 필승조’ 해체

예측 불가 뒷심싸움 전개

한승택 "투수 긴장감 풀어주기

포수들 집중력 더 중요해져"

한승택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다. 정신 없으니까 자기 투구를 못하고, 긴박한 상황에 몰리면 압박감을 급하게 이겨내려는 모습도 있다. 나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마운드 올라가서 장난도 치고 심호흡을 유도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장감 가득한 상황에서 경험이 부족한 불펜진을 이끌고, 승리를 위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채워야 하는 만큼 포수들의 집중력은 경기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특히 한승택은 경기 후반 투입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는 등 바쁜 후반기를 보내고 있다. 한승택은 "이런 시기는 물론 경기 안 나가는 날

에도 집중을 해야 한다. 상대 타자 타이밍도 봐야 하니까 게임 때 집중 많이 한다"며 "얼마 전에는 놀린과 올 시즌 처음 호흡을 맞췄다. 상황, 주 구종 이런 게 100% 파악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래도 잘 마무리한 것 같다. 옆에서 보는 것과 볼을 받는 것은 다르다. 많이 받아봐야 안 좋을 때 좋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알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긴박하게 바쁘게 돌아가는 불펜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이도 있다.

지난해 KIA 마운드 새 전력으로 떠오른 윤중현은 올 시즌에도 불펜에서 특목히 역할을 하고 있다.

필승조의 동반 부상으로 더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 마운드에 오르고 있는 윤중현은 "기회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선은 빠진 선수들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남은 투수들이 잘 해주어야 하는 시기다"며 "우리 불펜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질 수 있는 투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표다. 팀 목표로는 중간 이상의 순위를 하는 게 1순위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번 주, 다음 주 잘해서 안전하게 순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목표"라고 각오를 단정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의조, 시간은 흐르고 새 팀은 못하고...

EPL 올버햄프턴 이적료 문제

노팅엄에서는 '임대' 걸림돌

월드컵 뛰려면 빨리 팀 찾아야

소문은 무성하지만,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0·보르도)의 거취는 안갯속이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17일 "황의조의 이적 문제가 아직 결말에는 다가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노팅엄 포레스트(잉글랜드)는 황의조를 영입한 뒤 구단주가 같은 올림피아코스(그리스)로 임대를 보내려 한다. 하지만 황의조는 올림피아코스 임대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달 노팅엄 이적설이 제기됐으나, 조건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황의조는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2(2부)로 강등된 소속팀 지롱댕 보르도를 떠날 생각이 없다.

그는 이미 지난 시즌이 끝난 6월부터 "최대한 빨리 새 팀으로 이동해 적응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며 이적 의사를 밝혀 왔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새 팀을 찾지 못하고, 2022-2023시즌 유럽 축구는 이미 막을 올렸다.

황의조는 올여름 내내 타 구단으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프랑스 리그1의 낭트, 마르세유, 몽펠리에, 스트라스부르, 독일 분데스리가 살게, 미국프로축구(MLS)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등 다양한 팀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최근 리그1 브레스트가 영입을 제안했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도 손을 뻗었다.

황의조(26)이 뛰는 올버햄프턴 원더러스와 승격팀인 노팅엄 포레스트까지 러브콜을 보낸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황의조의 마음은 EPL로 기우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적 조건이다.

올버햄프턴은 처음 황의조의 이적료로 200만유로(약 27억원)를 제시했고, 팀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 진출할 경우 100만유로(약 13억원)를 옵션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르도는 이 금액에 만족하지 못한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보르도 입장에서는 팀의 핵심 공격수를 내주는 대가가 더 높은 이적료를 원한다.

유럽 축구 이적 정보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황의조의 추정 이적료는 700만유로(약 93억원)다.

보르도가 올버햄프턴과 이적료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사이 노팅엄이 영입전에 가세했는데, 이번에는 '임대'라는 걸림돌을 만났다.

다만 노팅엄과 보르도의 협상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황의조는 하루빨리 새 팀을 찾아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보르도에서 시즌을 치르는 그는 발랑시엔과 2022-2023시즌 리그2 1라운드에서 18분을 소화하고 니오르와 3라운드에서 2분여를 뛰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황의조

우즈, 커미셔너 역할? ... LIV 맞서 PGA 선수들과 회동

스타급 선수들 20명 참석

"우즈가 새 커미셔너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선수인 패트릭 캔틀레이(미국)가 한 농담이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PGA 투어 주요 선수들을 불러 모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후원을 받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17일 "우즈가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도착해 PGA 투어 BMW 챔피언십 출전을 앞둔 주요 선수들과 회동했다"며 "저스틴 토머스, 로리 매길로이, 조던 스피드 등 투어의 스타급 선수 약 20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우즈는 18일 윌밍턴에서 개막하는 BMW 챔피언십 출전 자격이 없지만 긴급회의를 위해 리키 파울러(미국)와 함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윌밍턴으로 이동했다. 파울러 역시 BMW 챔피언십 출전 자격이 없다. 우즈와 투어 정상급 선수들이 2021-2022시즌 플레이오프 2차전 개막을 앞두고 급히 모인 이유는 역시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올해 6월 개막전을 치른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는 사우디아라비아 '오일 머니'를 앞세워 필 미컬슨, 더스틴 존슨(이상 미국),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등을 PGA 투어에서 빼갔다. 여기에 올해 디오피온 우승자 캐머런 스미스(호



타이거 우즈

주)의 LIV 이적설이 계속 나도는 등 PGA 투어는 LIV 시리즈의 선수 빼내기에 어수선한 분위기다.

회동의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회의에 참석한 한 선수는 ESPN에 "톱 랭커들의 (LIV 시리즈에 대한) 의견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한 좋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회의는 대화장 밖의 한 호텔에서 열렸으며 약 3

시간 30분 정도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선수들은 제이 모너한 PGA 투어 커미셔너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즈 역시 LIV 시리즈로부터 7억~8억 달러 조건에 영입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7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9170억원 정도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고태원

K리그2 32R 베스트 11

전남드래곤즈의 고태원(사진)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2-2 무승부가 기록된 전남과 FC 안양의 경기는 베스트 매치가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7일 K리그2 32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안양과의 홈경기에서 100경기 출장 자축골을 터트린 고태원이 명단에 포함됐다.

고태원은 100경기 출장날이었던 이날, 1-1로 맞선 전남 추가시간에 왼쪽에서 김현욱이 올린 코너킥을 받아 머리로 골을 만들었다.

임찬술의 선제골로 경기를 열었던 전남은 고태원의 골로 다시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3분 만에 백성동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2-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4골이 나온 이 경기는 32라운드 베스트매치가 됐다.



고태원

MVP는 역전골을 장식한 대전하나시티즌의 율리안의 차이가 됐다.

율리안은 지난 14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충남아산FC와의 경기에서 1-1로 맞선 전남 44분 승부를 뒤집는 역전골을 장식했다.

대전은 율리안의 골을 지키면서 2-1 승리를 거뒀다.

베스트 팀은 경남FC가 선정됐다. 경남은 14일 김포솔터축구장에서 열린 김포FC와 원정경기에서 티아고, 원기중, 모재현의 골퍼레이드로 3-1 승리를 장식했다.

▶K리그2 32라운드 베스트 11

▶MVP: 율리안(대전) ▶FW: 티아고(경남), 카이저(대전), 원기중(경남) ▶MF: 율리안-임덕근(이상 대전), 안드레고(안양), 이준재(경남) ▶DF: 고태원(전남), 낄손주니어(부천), 조유민(대전) ▶GK: 이승빈(안산) ▶베스트 매치: 전남(2) vs (2)안양 ▶베스트 팀: 경남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